

2013년 5월 12일 (일요일)

날씨 : 맑음 ☀

제목 : 내 친구와 캠핑하기

오늘은 내 친구 윤아, 수아랑 같이 캠핑을
왔다. 우리 식구는 처음이라서 수아 아빠가
텐트 치는 것을 도와주었다. 그래서 우리는
잘 칠수 있었다. 수아는 자기가 가져온 게
임이 재미있대며 폭탄게임을 알려주었다.
윤아 아빠가 나무 사이에 해먹은 매달아 주셔서
빙빙 타고 놀았다. 점심으로 목삼겹살을화로에 구
워 먹었는데 그 맛이 바베큐 먹는 기분이였다. 아주
끝내주는 맛이였다. 배부르게 먹어서 더 먹을 수가
없을 때까지 먹고 냇가에서 울챙이, 돌쌓기,
물총놀이를 했다. 한참을 놀다보니 목이 말라 아빠가
아이스크림을 사다 주셨다.
물놀이 때문에 옷이 다 젖어 샤워를 하고 영화도
보았다.

내가 처음하는 캠핑이라 그런지 많이 설렘였고
잊지 못할 경험이었다. 너무너무 좋다.

